



▶ 누벨백미술관 이효문 작가 기획초대전

# 실체 그리고 허상 그 경계 속으로

석고·동으로 만들어진 인물상으로 구성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해 '허상'으로 대변

누벨백미술관(관장 최영희)은 이효문의 '실체 그리고 허상' 기획초대전을 오는 20일까지 갖는다. 이효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실체와 허상의 경계 속으로 관객들을 인도한다. 전시작들은 석고와 동으로 만들어진 인물상으로 구성된다. 작품은 보이는 형상과 선으로 표현된 투조(금속판의 일부를 풀어나 톱으로 도려내고, 그 남은 부분을 무너로 나타내는 기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작가는 작업에 있어, 석고로 제작된 인물상은 형태가 있는 실체가 정하고 비정형의 육면체 모형을 만들어 이어붙이거나 몇 개의 실선으로 형상화 했다. 그는 "이러한 작업방식으로 구현된 인물상은 '비어있는 공간'으로 인해 '허상'으로 대변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의 모습이 실제라고 생각하지만, 조각 실체는 그 이면에 내재된 보이지 않는 존재일 것"이라는 것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 한다. 그는 "작품의 비어있는 공간은 '허상'이라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혹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 존재(공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가는 전주대 및 동대학원 미술학과와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북우회공모전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조각부문대상 전라미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전북미술대전 초대작가, 전주조각회, 전북조각회, 전남조각회, 한국미술협회회원 및 전주대 건축학과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 '조선왕조부터 대한제국까지' ... 마당의 백제기행

(사)마당의 백제기행이 다시 역사의 시간 속을 걷는다. 1월, 그 첫 번째 기행에선 왕들의 공간인 궁궐에서 '조선왕조부터 대한제국까지'의 흔적을 찾아 역사를 이어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기행은 조선 왕조의 법궁이자 조선의 중심지였던 '경복궁'과 단아하고 고즈넉한 '경희궁'. 그리고 구한말 역사의 현장의 '덕수궁'과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던 '환구단'을 찾아가는 것이다. 경복궁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다섯 개의 궁궐 중 첫 번째로 만들어진 곳으로, 조선 왕조의 법궁이다. '큰 복을 누리라'는 뜻을 가진 '경복(景福)'이라는 이름은 정도전이 지은

것. 이어 방문하는 '사적 제271호인 경희궁'은 5대궁 중 서쪽에 자리하여 서궐로도 불렸다. 인조·효종·철종 등 10여 명의 임금이 살았지만 기간이 짧았고 거의 빈 궁궐로 있었다. 원래 '경덕궁'이었는데 1760년(영조 36) '경희궁'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덕수궁'은 본래 월산대군의 집이었던 곳을 선조가 행궁으로 삼았다. 조선의 5대 궁궐 중 규모는 가장 작고 구한말의 역사적 현장이었으며 전통목조건축과 서양식의 건축이 함께 남아 있는 곳으로 조선왕조의 궁궐 가운데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함께 둘러보는 '환구단'은 천자가 하늘에 제



를 드리는 등근 단으로 된 제단이다. 고종이 이곳에서 즉위를 올리고 대한제국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기행은 조법중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와 함께 고즈넉한 한국의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서울의 궁궐에서 하루하루 역사를 만들어 나갔던 그 시간과 이야기를 만나 본다. 기행참가자는 선착순 20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마당 기획팀(273-48234) 또는 마당 홈페이지(http://jmadang.com) 여행상품 예약 코너에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 혼불문학상 수상작 읽고 느낀 것 글로 써봐요

3월 말까지 공모전 응모

(사)혼불문학과 최명희문학관, 전주MBC, 다산북스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1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감상문 공모전'이 열린다. 이번 감상문 공모전은 '난설현' '프린세스 바리' '홍도' '비밀정원' '나라 없는 나라' '고요한 밤의 눈' '칼과 혀' 등 역대 혼불문학상 수상작 7편 중에서 한 권을 읽고 느낀 점을 200자 읽고자 15매~50매 분량의 독후감 형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3월 31일까지. 혼불문학상 수상작품은 한국문학이 아직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영역을 날카롭게 포착하면서도 그것을 밀도 있게 포섭해 내는 역량과 기량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011년 첫 번째 수상작인 최문희의 '난설현'은 스물일곱 해의 짧고 불행했던 삶의 고통과 슬픔을 시로 달랜 16세기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헌의 삶을 따라가는 작품이다. 두 번째 수상작인 박정운의 '프린세스 바리'는 세상의 규칙과 삶의 방식에 무지한 바리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알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부조리한 세상의 모습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다. 김태현의 '홍도'는 영화감독 동현이 비행기에서 자신이 433살이라고 주장하는 여인

홍도를 만나며 시작되며, 박혜영의 '비밀정원'은 노관이라 불리는 역사가 깊은 종갓집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이광재의 '나라 없는 나라'는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기존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개의 역사적 실체 혹은 실재를 덧씌우고 그것을 누빔 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을 재구성한 작품이다. 박주영의 '고요한 밤의 눈'은 어떤 기록에도 올라 있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동생 D가 실종된 정신과 의사인 언니를 찾아 나서고, 15년의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나 누군가 알려주는 그대로 스페이의 삶을 살며 조정당해야 하는 남자 X의 의식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2017년 수상작인 권정현의 '칼과 혀'는 1945년 일제 패망 직전의 붉은 땅 민주를 배경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 모리와 그를 암살하려는 중국인 요리사 천 그리고 조선 여인 길순, 세 사람의 시점으로 전개된다. 대상 1명에게는 2백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가작 3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혼불문학상 수상 작품 세트가 주어진다. 출품작은 메일(jeonjuchonbul@nate.com)이나 우편(전북 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29 최명희문학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 발표와 우수작품 시상식은 5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곤충아트 특별전 21일까지

남원시(시장 이화주)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곤충아트 특별전'에 지난 한주 동안 4,000여명이 다녀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곤충과 아트를 주제로 하여 '곤충아트체험관', '곤충생태관', '곤충놀이터', '세계지구 곤충표본관'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로15M 세로2.5미터의 국내 최대규모의 버터플라이아트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곤충작품으로 남녀노소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5여종 1,000여 마리의 다양한 곤충

과 절지생물들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번 "곤충아트 특별전"은 오는 1월2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7시30분까지(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바래봉 일원에서는 2월 11일(일)까지 제7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가 열리며 주요행사는 눈썰매, 얼음썰매, 눈꽃등산, 눈꽃등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있다. 올 겨울 남원은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